

THE WOOSONG UNIVERSITY NURSING SCIENCE DEPARTMENT PRESS



# Sol-NURSING TIMES

SOL은 又松의 소나무를 의미합니다.

제 12호 2017년 1학기(2017. 3. 1 - 2017. 8. 31)





Good luck!

## SOL-NURSING TIMES

THE WOOSONG UNIVERSITY NURSING  
SCIENCE DEPARTMENT PRESS  
SOL-Nursing Times

편집장 김 유 빈  
발행처 SOL-Times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사무실  
☎ 042-630-9290  
우송대 서캠퍼스 보건의료과학관 3층


\* 1년에 2번 발행됩니다.

## CONTENS

- 04 새로운 간호학과 교수진 소개  
신임교수 경영숙 교수 인터뷰  
신임교수 Peter McErlain 인터뷰
- 06 간호학과 소개  
간호학과 교수구성  
국제간호교육프로그램
- 08 세계로 뻗어나가는 우송간호 - 우송간호 해외진출  
키르기스스탄 해외 봉사  
말레이시아 해외 연수  
일본 해외 연수  
간호학과외 끊임없는 도전 - 솔챌린지 사업  
1) 솔챌린지 사업 경과 보고  
① 미국 전문직 간호사와의 만남  
② 마취 전문 간호사와의 만남
- 12 글로벌 간호리더를 육성하다-우송간호 역량강화  
외국어 역량  
① 제 1회 의료통역능력 검정시험  
② TORFL 합격현황  
③ 제2 외국어 경진대회  
학술 취업 역량  
① 한국간호교육평가원 송지호 원장 특강  
'교육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Self-leadership'  
② 학술&취업동아리 경진대회  
③ 우수지수 설명회
- 16 학생간호사로서의 첫걸음 - 우송간호 실무역량  
3학년 하계 첫 임상실습  
1) 분당차병원  
2) 삼성서울병원  
3학년 전원 첫 분당서울대병원 실습  
2학년 동계 첫 임상실습  
인턴십 인터뷰 -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 22 우송간호 지원현황 및 전공체험  
수시 면접고사  
배방고등학교 전공체험  
2017년 수험생 간호학과 경시지원 현황
- 24 간호학과 동경  
전 학년  
1) 새로운 학기의 시작, 'Sol-Fun'  
2) 보건복지대학 Learning concert 대회  
3) 우송대학교 축제, '응답하라 1995'  
4) 간호학과 학술제, 'Now You See A Nurse'  
1학년, 2학년  
1) 제 2회 글로벌 하모니  
2) 정부대전청사 통계청 견학프로그램  
3) 버디버디 경진대회  
3학년  
1) 우송대학교 이사장 방문  
4학년  
1) 국가고시 대비 특강  
2) 제 5회 우송간호 학위수여식 개최
- 30 우송간호 졸업 및 취업현황  
2016년 간호학과 채용 소식  
제 57회 간호사 국가고시  
NCLEX-RN 취득 현황 - 김예원 동문 인터뷰
- 35 솔타임즈 임원진 인사

WOOSONG AM 12:00

← 2016학년도 신입교수 인터뷰 정영숙 교수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먼저 간호사로서 이렇게 간호학생들을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임상경험보다는 보건의료현장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업무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십 년을 근무하였고, 아울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특히 요양보험의 급여와 심사체계 등)시행 및 정착에 관여 하였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을 마지막으로 하고 이렇게 간호대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어서 무척 새롭고 긴장이 됩니다. 비록 간호사로서의 임상경험은 많지 않으나 임상과 보건의료 분야에서 간호사로서 필요로 하는 지식과 정보 등을 가르치고 전달하는데 힘쓰겠습니다.

**Q. 학생들에게 가르치게 될 과목을 소개해주세요.**

A. 향후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할 때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분야 즉, 건강증진 및 건강보험 관련 내용 등도 포함하여 가르칠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현 보건의료분야의 시스템과 간호사가 필요한 분야 및 간호사의 역할 등에 대하여 폭 넓은 이해와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Q.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나요?**

A. 학생들이 간호사가 된 이후에 임상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건의료 관련 현장에 관심을 두길 장려합니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외에 국민연금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서도 간호사 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병원에서 근무하게 되는 날이 올지라도 간호사의 길을 병원이라는 한정된 장소로 한계를 짓는 근시안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보다 더 넓은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 이호은 기자 / 사진제공 : 정영숙 교수

WOOSONG AM 12:00

← 외국인 신입교수 인터뷰 Professor Peter McErlain



Professor Peter McErlain has come to Woosong university from Australia in recent. He's been teaching Medical-surgical nursing, Pathophysiology, and Pharmacology as supplementary course for 4 weeks. The course is only for sophomores and some junior, which takes approximately 4 hours a day. Then let me introduce our new foreign professor.

**Q. We've heard that you had been working as a nurse for several years. Please introduce yourself especially your previous career in Australia.**

A. I had been working as a nurse and a teacher for 40 years since 1970s. In fact, I was the first man in the hospital which I worked in. The first department that I started to work was pediatrics, followed by intensive care unit and pediatric intensive care unit. Then after 5 years of working as a nurse, I transferred to become a teacher in the university. After that, I had been a director of nurse for 10 years and then spent half of my times (for 20 years) on teaching. Now, I'm really excited to teach in Korea.

**Q. Why did you determine to come to Woosong university? Tell me the main reason why you came to Korea.**

A. First of all, my wife, Katinka and I had adopted my daughter from Korea, Daejeon 20 years ago. As she grew into adulthood, I wanted to take her to the hometown and help her to be part of the culture and connected to her own heritage. I'm planning to be here for 2 years from now on. As we came to Korea, we both got appropriate jobs. For me, I became a professor in Woosong university and for my wife, she became a counselor of Sol-bridge. We are satisfied with our professions.

**Q. Lastly, tell me your promise for the next semester.**

A. I'm looking forward to learning health system of Korea, nurses, hospital standards. I will go through practical training with seniors in Seoul hospital. I'm really interested in the public health insurance system since I read about some books related to that field. Therefore, I'm really privileged to know more about Korea.

◆ 이호은 기자 / 사진제공 : 정영숙 교수

WOOSONG AM 12:00

## 간호학과 교수구성



국가	교수 수
Korea	5
USA	2
Philippine	2
Nepal	1
Australia	1
South Africa	1
Algeria	1

9개국 15명의 교수진(교수 1인당 학생 21.3명)  
외국인 교수 10명(66.7%)

- 간호학 전공 외국인 전임교수 5명
- 영어 전담 외국인 교수 2명
- 러시아어, 아랍어 및 중국어 전담 외국인 전임교수 각 1명



WOOSONG AM 12:00

## 국제간호교육프로그램



제2외국어  
아랍어, 러시아어, 중국어  
2학점 주당 4시간  
총 6개 학기

영어교과서  
외국인 교수 강의

미국간호사면허  
International Global Nursing  
9학점

총 21학점  
42시간





#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키르기스스탄 대사협 캠프



유난히도 뜨거웠던 이번 해 여름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3학년 학생들(강민지, 김윤지, 김지은, 손희주)이 키르기스스탄에 해외봉사를 다녀오면서 가슴 따뜻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 줄 대표 손희주 학생을 만나보겠습니다.

### Q. 안녕하세요. 먼저 이번 프로그램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대사협)의 월드프렌즈 32기로 키르기스스탄에 해외봉사를 다녀왔습니다. 14박 16일 일정으로 키르기스스탄 현지에서 교육봉사, 주민건강증진활동, 문화탐방 등을 하고 왔습니다.

### Q.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동기야, 참여를 위해 어떤 것을 준비했는지 여쭙보겠습니다.

A. 처음에는 Best practice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Global Nursing Camp in Russia 프로그램을 신청했는데, 진행이 늦어지면서 김경아 교수님의 추천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대사협의 해외봉사프로그램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신청 당시에는 큰 기대를 하지 못했는데 놀랍게도 저희 4명 모두 선발되었어요. 선발된 후에는 발대식과 1, 2차 심화교육에 참여하면서 다른 학교에 다니는 여러 대학생들과 대사협 지도 선생님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갔습니다.

### Q. 봉사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다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유니세프를 직접 방문한 것입니다. 발대식이나 심화교육에 참여하면서 교육이나 건강증진활동에 대해 많이 배웠지만, 실제 키르기스스탄의 경제적 수준이나 교육을 제공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유니세프를 직접 방문하여 실제 그 나라의 의료시스템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한 편으로는 충격적이면서도 하나의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지막 교육을 했던 날 현지 학생들로부터 직접 그린 그림과 케이크를 받았을 때였습니다. 학생들이 한국어로 '사랑합니다. 잊지 마세요'라고 말했는데 저희 학생들은 그 말 한 마디에 다 울었습니다. 많이 부족한 저희를 이렇게나 좋아해줘서 너무 고마웠고 한 편으로는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했습니다.

### Q. 마지막으로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A. 해외봉사라는 것을 쉽게 접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가 되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준비 과정이 힘들기도 하고 준비하는 동안 다른 것들에 조금 소홀해질 수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지만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대사협 프로그램이 좀 더 홍보가 잘 되어서 다른 동기나 후배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참여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차윤주 기자 / 사진제공 : 고남의

# 세계로 뻗어가는 우송간호, 말레이시아 해외 연수



올해 여름,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유리나, 황은지, 유성영, 이현지)이 Best Practice 사업을 통해서 영어권 국가 탐방 기회를 얻어 말레이시아를 방문하게 되었다.

### Q. 말레이시아에서의 연수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A. 2주 동안은 University of Malaya에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평일 수업은 오전 9시에서 오후 2시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수업시간엔 외국인 교수님들의 지도 하에 간호사로서의 사명심을 기르는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전문직 종사자의 자질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과 토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에 주어진 자유시간엔 트윈타워, 수리아, 파빌리온, 바투 케이브와 같은 랜드마크들을 방문하였습니다. 수업이 없는 각 주 금요일과 주말엔 페낭과 싱가포르를 다녀왔습니다.

### Q. 연수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A. 매 순간이 기억에 남지만 Best Practice 사업으로 다녀온 만큼 그 곳의 병원환경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선진화된 모습에 저희 모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무균법과 멸균법을 엄격히 관리 감독하며 위생상태가 매우 깔끔하고 좋았습니다.

### Q. 선배들과 함께하며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A. 처음에 선배들과 어떻게 친해질지에 대해 걱정했던 바와 달리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서로 점검하고, 길에서 노래만 나와도 같이 춤추고, 놀이기구를 기다리면서도 서로 장난치고, 스마트폰 지도 하나에 의지하며 길을 잃어 돌아가면서도 함께 웃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소소한 부분들 까지도 선배들과 함께였기에 더욱 더 빛나고 즐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말레이시아 팸의 준말인 말팸을 만들어 아직까지도 꾸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 진윤정 기자 / 사진제공 : 고남의

# 일본 해외연수 프로그램



2017년 2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 동안 일본 오사카 연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대상자는 보건복지대학 내 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진대회 우승 등의 경력이 있는 학생 33명으로 그 중에서 간호학과 김단홍, 노희주, 장지안, 최은비, 윤진실 학생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 각자 주제를 도맡아 발표를 하는 준비과정을 거쳤는데, 간호학과는 오사카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문화, 축제 및 음식에 대해 소개하였다.

학생들은 우송대학교의 자매대학인 '오타니' 대학교에서 재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는 시간을 가졌고 '간사이' 대학교에서는 서예를 직접 체험해 보는 기회를 가졌다. 아베노 방재센터에서는 지진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체험을 통해 지진 대피 요령 및 소화기 사용법 등을 교육받았다. 또한 '오사카 성', '도톤보리', '나라공원', '교토 청수사', '도지'를 포함한 여러 일본의 국보급 문화재를 견학하였다. 김단홍 학생은 '일본의 우리나라와 닮으면서도 특색 있고 개성 강한 문화의 성격에 매료되었다.'고 소감을 전하였다. 마지막 날에는 '교세라' 세라믹 회사에서 인공관절과 두개골 전시 모형 체험전을 둘러보는 시간으로 일정을 마무리 지었다.

학생들이 일본 연수를 계기로 넓은 세상을 살피고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였으면 한다. 앞으로도 대외적으로 활발히 활동하여 더 많은 경험과 내공을 바탕으로 간호학과 학문에 기여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되었으면 바란다.

◆ 이호은 기자 / 사진제공 : 최은비, 장지안



## 간호학과의 끊임 없는 도전 솔챌린지 사업

간호학과 Sol-Challenge 팀이 지난 1월 21일부터 2월 2일, 2월 9일부터 2월 21일까지의 미국 해외 연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였다. 해외 연수의 기회를 가진 두 팀의 가치 있는 경험을 들어 보고 다른 학생들에게 간접 경험을 전하기 위해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간호학과 1학년 권혜완, 이소현으로 구성된 'Future CRNA(Certified Registered Nurse Anesthetist)' 입니다. 저희는 1월 21일부터 2월 2일까지 미국으로 해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 Q. Sol-Challenge 프로그램에 신청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해 주세요.

A. 저는 중학생 때부터 마취전문간호사라는 뚜렷한 꿈을 가지고 있었고, 미국이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어머니의 추천으로 미국에서 활동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Sol-Challenge라는 좋은 프로그램을 알게 되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Q. 일정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A. 1월 21일부터 25일은 뉴욕, 26일부터 2월 2일까지는 미시시피에 있었습니다. 뉴욕에서는 주로 현지 문화 체험을 진행하였으며 직접 American Red Cross에서 수업을 들어 CPR(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미시시피에서는 미시시피주 마취전문간호사 협회의 연차 주주 총회에 참여하여 CRNA, SRNA(Student Registered Nurse Anesthetist)와 만나고 인터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회의는 주로 현직 CRNA 관련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정치적, 법적 보호 관련 주제들을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CRNA들이 간호와 마취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 어떻게 관여하고 주체적으로 나서는지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Q. 특히 기억에 남았던 일정에 대해서 말해 주세요.

A. '미국 서던미시시피 대학' (University of Southern Mississippi)의 공미정 교수님께서 도와주셔서 Orthopedic Institute에 방문했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직접 수술실에서 환자를 마취하는 상황을 탐방할 수 있어서 더 인상 깊었습니다.

### Q. Sol-Challenge를 끝내면서 간단한 소감을 말해 주세요.

A. 한국의 마취전문간호사 수는 1,000명 이하로 인력이 많이 부족해 마취전문간호사에 대해 습득할 수 있는 정보가 많지 않았는데 직접 보고 배울 수 있어서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좋은 기회였습니다. 시작은 어렵고 막막했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어 더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김의현 기자 / 사진 제공: 권혜완



###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반갑습니다. 간호학과 2학년 김수경, 김유라, 김유진으로 구성된 'UBUNTU' 입니다. 저희는 2월 9일부터 2월 21일까지 미국 뉴욕과 로스앤젤레스로 해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 Q. 일정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A. 2월 9일부터 14일까지는 뉴욕, 15일부터 21일까지는 로스앤젤레스에서 활동하였습니다. 재외한인간호사회(OKNA)에 초청받아 3명의 한인 간호사와 인터뷰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미국과 한국간호사의 실상 및 다양한 혜택과 장단점들을 비교하고 미국 간호사로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언을 받았습니다.

### Q. 일정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있다면 말해 주세요.

A. 강창희 학과장님의 도움으로 '엔젤레스 대학' (Angeles College)과 연계를 맺어 학생들이 대학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엔젤레스 대학은 미국 간호사를 양성하는 대학으로 NCLEX-RN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을 제공하고 6개월 이상 미국에서 생활할 경우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재학생들과 청강을 하고 대학 생활, 체계와 교과과정을 배웠는데 그 활동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 Q. Sol-Challenge를 끝내면서 간단한 소감을 말해 주세요.

A. 단순히 미국에서 간호사 직업에 종사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에서 벗어나 미국 간호사가 되어야겠다는 꿈을 구체화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의현 기자 / 사진 제공: 김유진



## 제 1회 의료통역능력 검정시험 1차 시험 통과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정형오 인터뷰



**Q. 안녕하세요. 제 1회 의료통역능력 검정시험 1차 시험에 통과하신 것을 축하 드립니다. 의료통역능력 검정시험에 대하여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 먼저 시험에 대하여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A.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제 1회 의료통역검정시험은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시험 등 이전까지 민간에서만 시행되던 기존의 시험들과 달리, 국내에서 처음으로 정부가 시행하는 해외의료시장유치와 관련된 의료통역 검정시험입니다. 보다 경쟁력과 공신력이 있는 시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Q. 이와 같은 시험은 어떠한 계기로 보게 되셨나요?**

A. 평소에 우송대학교 간호학과가 추구하는 국제간호역량 증진이라는 목표와 또 저의 간호 비전과 맞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International Global Nursing 실습 때 관찰 할 수 있었던 의료 통역 코디네이터 선생님들께 감명을 받은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Q. 시험을 준비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A. 처음 시행된 시험이다 보니 정보가 부족하여 시험 공부를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하는지 자료가 없었던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Q.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같은 시험에 도전하고 싶어할 간호학과 선후배 및 동기들에게 시험과 관련된 조언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아직 2차 시험이 남아 있어 시험에 관련된 노하우나 방법 등을 전하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4년 동안 우송대학교 간호학과에서 글로벌 간호 리더를 꿈꾸며 원서로 공부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시험이며, 또한 합격할 만한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도전할 것을 조언해주고 싶습니다.

◆ 이유나 기자 / 사진출처 :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사이트

## TORFL 합격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Best Practice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Global Nursing Camp in Russia 연수가 끝나고 학생들은 연수 준비과정부터 착실히 준비한 TORFL (Test of Russian as a Foreign Language) 시험에 도전하였다. 그 결과 17명의 학생이 응시하여 총 13명의 학생이 TORFL 기초단계 자격증을 취득하여 약 76%의 높은 합격률을 자랑하였다. 값진 노력에 합당한 빛나는 결과였다.

◆ 차윤주 기자 / 사진제공 : 고남의

## 제2 외국어 경진대회



2016년 12월 21일, 우송타워 6층에서 간호학과 1학년, 2학년 대상으로 제2 외국어 경진대회가 개최되었다. 제2 외국어 경진대회는 학생들의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향상도모 및 풍부한 전공 관련 지식을 부합시킨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매학기 시행되고 있다. 경진대회 외국어 부문은 중국어, 러시아어, 아랍어, 영어로 총 4개이고 외국어 부문별 각 2팀씩 출전하였다. 각 팀은 대표적인 질병을 정해 국제진료 시나리오 교재를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연극하였고 질병에 대한 간단한 소개, 증상, 진단, 치료 및 예방을 프레젠테이션 발표하였다. 비록 준비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1학년과 2학년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대회출전 준비에 임하였기에 대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 이 대회를 통해 학생들은 끈끈한 팀워크와 함께 자신의 외국어 역량을 표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이호은 기자 / 사진제공 : 김익현

## 간호전문직의 현재와 미래 교육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Self-Leadership



2016년 10월 25일 화요일 2시 우송타워 4층 강당에서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과 우송정보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 한국간호교육평가원 송지호 원장의 특강이 있었다. 특강은 강사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와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정보화 시대의 교육 및 셀프 리더로서의 면모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송지호 전 원장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장으로서 우리나라 간호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하였고 간호협회에서 간호계 전반에 헌신을 하였으며 아동간호에 관한 여러 논문과 정책 등을 지필 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였다. 송지호 전 원장은 교수와 지식중심의 교육에서 학생과 역량이 중심이 되는 교육 혹은 창의력 있는 인재를 창출하고 성과를 추구하는 교육으로 변화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학생들은 단순한 암기와 이해를 벗어나 응용, 분석 등 종합적 능력을 함양하는 법을 배워야 하며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모두가 더불어 지낼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자신의 역량과 능력 등을 스스로 이끌어내어 뚜렷한 목표의식을 갖고 전진해 나갈 때 비로소 흑연과 숲보다 더 가치 있는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되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 이유나 기자 / 사진출처 :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사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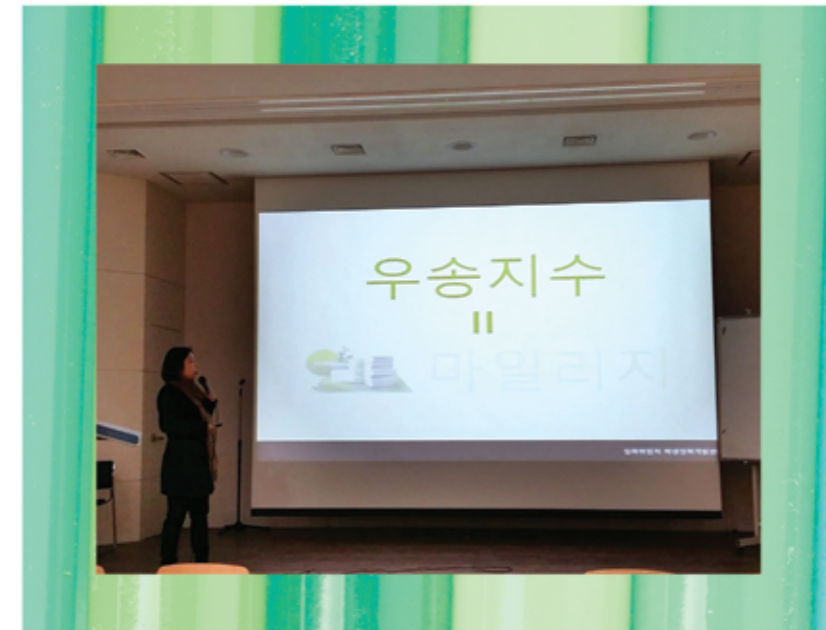


## 공부와 취업을 위해 뚝뚝 뭉친 우리들 학술&취업동아리 경진대회

2016년 11월 23일 오후 6시, 우송관 4층 교수회의실에서 학술 및 취업동아리를 운영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단과 대학 동아리 경진대회가 있었다. 경진대회는 심사교수진 소개와 개회사로 시작되었으며 학생들이 동아리를 소개하는 본 대회로 이어졌다. 학생들은 각 동아리의 연혁을 간단히 소개하고, 공모전이나 학술대회 등 주요 활동에 참여한 내역과 실적을 보고하였으며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송대학교 간호학과에서도 강창희 학과장이 지도하는 취업동아리인 GPN(Globally Promising Nurse)을 소개하기 위해 3학년 김지은 학생과 김미성 학생이 대표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였다. GPN은 '간호의 세계화, 세계화를 준비하는 글로벌 간호리더' 라는 학과 비전에 맞추어 영자 신문을 읽고 토론하기 등의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앞으로 글로벌 간호사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을 알아보고 미리 준비하는 동아리임을 소개하였다. 이 대회를 통해서 자신의 전공과 미래에 대한 전문성이 돋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 차윤주 기자

## 우송지수 변경사항 설명 특강 “모든 학생들이 특혜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



11월 30일 수요일 오후 4시 미디어 융합관 시청각실에서 새롭게 변화된 우송지수 설명 특강이 있었다. 학생경력개발센터의 취업지원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정은미 강사가 강의를 진행하였다. 우송지수란 우송대학교 학생 개개인이 재학 중 수행하는 모든 교과, 비교과 활동을 정량적으로 수치화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취업역량을 객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인성, 글로벌&ICT역량, 전공, 취업활동역량 총 4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2016년 변경된 사항으로는 모든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항목을 개발하고 항목별 최고 취득점수(250점)을 제한함으로써 모든 항목을 고루 준비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강사는 취업준비를 앞두고 개개인의 취업하고자 하는 분야에 맞춰 적합하게 준비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강의를 마무리 지었다.

◆ 이호은 기자 / 사진제공 : 고남의

# 3학년 하계 첫 임상실습

## 학생간호사로서의 첫걸음, 3학년 하계 임상실습

2016년 5월 20일 나이팅게일 선서를 한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3학년 학생들이 이번 여름 학생간호사로서 첫 임상실습을 나가게 되었다. 첫 실습인 만큼 모든 것이 새로운 환경에서 학생들이 어떤 경험을 했고, 무엇을 느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분당차병원 DR(분만실)  
김수민 학생간호사



삼성서울병원 14F병동  
김현희 학생간호사

**Q: 안녕하세요? 먼저 실습과목과 병원 및 병동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저는 이번 여름 분당차병원 분만실에서 2주간 여성간호학 실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당차병원은 개원 당시 여성병원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부인과와 소아과 분야에서 국내 이미지를 확고히 하고 있어 이 곳에서 여성간호학 실습을 하게 된 것이 매우 기쁩니다. 분당차병원 분만실은 가족분만실, 맞춤형분만실, 일반분만실, 회복대기실, 수술실 등 분만을 위한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이 곳에서는 분만 전과 분만 시 간호를 수행하며, 분만 후에는 차례로 회복실과 병동으로 산모와 아기를 이동시킵니다.

**Q: 실습을 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은 무엇인가요?**

A: 가장 기억나는 것은 간호사 선생님께서 태반을 가까이에서 관찰하고 직접 만져볼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분만실에서는 책에서만 보던 태반 만출 기전을 실제로 관찰할 수 있어 기전에 대한 이해를 더욱 확실하게 다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실습 중에 학생간호사로서 무엇을 해야 할 지 많은 고민을 했는데, 간호사 선생님께서 “분만실 간호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는 아이가 태어나는 날이 산모가 죽는 날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제가 어떤 간호를 수행해야 하는지, 왜 그 간호가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고 직접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Q: 마지막으로 분만실에서 실습하게 될 후배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A: 실습 전 여성간호학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임신과 출산은 여성에게 그리고 아기에게 정말 특별하고도 특수한 상황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했다면 좋겠습니다. 분만실에서는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결핍될 경우 산모는 예민하게 반응하고 또 서운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 선생님께서 “직접 간호나 정신적 지지 이외에도 보호자 배려 및 분만실 환경 조성 등 분만실 간호사가 행하는 많은 것들을 최대한 배워갔으면 좋겠다. 우리는 배우려 하지 않는 학생은 원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실습 환경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진지하게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Q: 안녕하세요? 먼저 실습과목과 병원 및 병동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저는 이번 여름 삼성서울병원 14F병동에서 2주간 성인간호학 실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은 학생간호사라면 한 번쯤 꼭 가보고 싶은 병원이라고 생각했기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인 성인간호학을 이 곳에서 실습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저는 14F병동에서 실습을 했는데 이 곳은 NS (neurosurgery)와 OS (orthopedic surgery)파트를 담당하는 곳이었습니다. 간호업무는 A~D팀으로 나누어진 팀 간호제도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특이한 점은 B팀의 경우 2교대 시범운영 중이었습니다.

**Q: 실습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A: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경계가 뚜렷했습니다. 실습했던 다른 병원의 경우 업무경계가 뚜렷하지 않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사이에 위화감과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곳에서는 업무 구별이 잘 되어 있어 갈등 없이 가족 같은 분위기로 업무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제가 직접 환자의 의식 상태를 사정하고, 약물을 mix해본 것입니다. 이 곳에서는 모든 선생님께서 학생간호사의 실습을 위해 힘써주시고 존중해주신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때문에 다른 곳에서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해볼 수 있었던 점이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사가 정말 맛있었습니다. 저와 제 파트너는 항상 식사시간이 부족했고 근무시간이 달라 식사를 같이 한 적도 거의 없었는데, 삼성서울병원에서 함께 맛있는 밥을 여유롭게 먹을 수 있어서 매 식사시간마다 정말 행복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Q: 후배들에게 실습을 위한 조언을 해준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해당 부서 사전학습을 충분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요 질환과 자주 쓰이는 약물, 자주 시행되는 진단검사 등을 잘 숙지하고 실습에 임하면 시야가 넓어지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느끼고 관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절대 눈치보지 말고 능동적인 자세로 실습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께서 전반적으로 질문에 잘 응답해주시기 때문에 많이 여쭙으면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 SNUBH(분당서울대학교병원) 간호관리학 실습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3학년 학생들은 2016년 12월 12일부터 2017년 2월 17일까지 동계 임상실습에 임하게 되었다. 이번 동계 임상실습에서 학생들은 간호관리학, 정신간호학 이외에도 선택 및 종합 간호실습을 하게 되었다. 특히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전원이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간호관리학 실습을 하게 된 것이다. 총 84명의 학생들이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외과, 신경과, 소화기내과, 이비인후과 등 10개의 병동에 배치되어 각 2주간 간호관리학 실습을 진행하였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 2003년에 개원하여 짧은 역사 속에서도 많은 고객의 성원에 힘입어 대한민국 대표 의료기관으로 도약하였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의 최첨단 스마트 환경은 환자의 안전을 책임지고 병원 이용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특히 고도로 정보화된 분당서울대학교병원만의 EMR 프로그램은 매우 놀라웠다. 환자에게는 최고의 치유환경을, 보건의료인에게는 최고의 직업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학생들이 많은 것을 보고 배우며 전문적 간호사로서의 꿈을 키우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 차윤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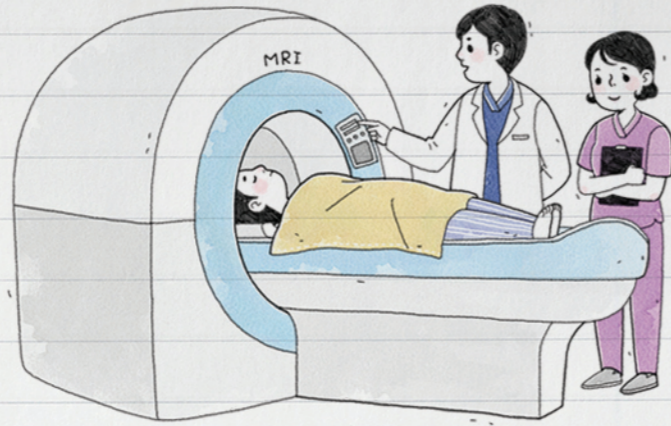
## 2학년 동계 첫 임상실습

2017년 1월 9일부터 20일까지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2학년 학생들이 학생간호사로서 겨울 임상실습을 다녀왔다. 학생들은 3~4명이 한 팀을 이루어 각각 대전보훈병원, 대전을지대학교병원, 대전성모병원, 대전웰니스병원 등 총 4개의 병원에서 실습을 수행하였다. 총 2주간 실시되는 이번 겨울학기 실습에서 그 동안 수업시간에 배운 기본간호학을 실제 임상에 적용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실습을 마친 후 학생들은 “학과 최초로 2학년 겨울학기에 실습에 임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이번 실습을 통해서 수업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실제 임상에 적용해보면서 공부한 내용을 정리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 고남의 기자



# 인턴십



## 서울아산병원 인턴십

2016년 12월 서울아산병원은 전국 각 간호대학의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턴십을 수료할 학생을 모집하였다. 추천 및 지원 과정을 거쳐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목혜경, 박아름, 그리고 최재필 학생이 최종 인턴십 과정에 합격하였으며 세 학생은 각각 신경외과병동, 흉부외과병동, 그리고 회복실에 배치되었다. 2017년 1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서울아산병원에서 인턴십 과정을 수료한 세 명의 학생들을 인터뷰하였다.

◆ 차윤주 기자

### Q: 안녕하세요. 서울아산병원 인턴십에 지원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A: 안녕하세요. 저의 경우 서울아산병원으로 2016 하계 실습을 다녀온 것이 가장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서울아산병원은 제가 실습한 병원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병원이었으며 최고의 의료수준을 갖추어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그 이미지가 확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인들의 자부심도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그 매력을 한 층 깊게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 인턴십에 지원하였고 운 좋게 인턴십 과정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 Q: 인턴십과 실습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학생간호사로서 실습을 하게 되면 실습 중인 병동의 특성과 환자를 파악하는 것이 주가 되지만, 인턴십은 학생간호사가 아닌 신규 간호사로서 트레이닝을 받는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따라서 실습을 진행할 때처럼 프리셉터 선생님을 따라다니며 병동을 파악하는 것 이외에도 인턴십 학생으로서의 일과가 따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매일 부서 수간호사선생님과 면담을 가지며 간호팀장님 지도 하에 다른 학교의 인턴십 학생들과 함께 간담회에서 케이스 스터디를 합니다. 또한 신규간호사로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들을 중심으로 교육해주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더욱 더 소속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 Q: 인턴십을 통해 얻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A: 인턴십은 실습이나 학교생활을 통해서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임상에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간호기술을 관찰할 수도 있었으며 경력이 많은 프리셉터 선생님들의 경험담을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선생님들이 저희 인턴십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환자에 대한 간호뿐 아니라 다양한 사례를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을 아낌없이 공유해주셨기 때문에 책임을 가지고 학생을 교육하는 태도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 Q: 후배들에게 인턴십을 추천하는 한 마디를 해주세요.

A: 위에서도 말했듯 학생간호사로서 실습을 나가는 것과 인턴십 학생으로서 인턴십을 수료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아산병원 인턴십이 동계 실습 기간 중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휴식없이 실습과 인턴십 과제를 수행하는 것에 있어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큰 부담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턴십을 통해 신규간호사로서의 나의 모습을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희망하는 병원의 인턴십 기회가 주어진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원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뿐만 아니라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해 아직 막연한 분들에게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삼성서울병원 인턴십

2016년 12월 삼성서울병원은 전국 각 간호대학의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턴십을 수료할 학생을 모집하였다. 추천 및 지원 과정을 거쳐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국하영 학생이 최종 인턴십 과정에 합격하였으며 아동청소년과에 배치되었다. 2017년 2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삼성서울병원에서 인턴십 과정을 수료한 국하영 학생을 인터뷰하였다.

◆ 차윤주 기자

### Q: 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인턴십에 지원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A: 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인턴십 공고가 공지되었을 때 저는 마침 삼성서울병원에서 동계 실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은 환자에게 최고의 간호를 제공하며 간호사로서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곳이었으나 제 성적이 별로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지원할 수 없는 병원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침 인턴십 공고가 공지되었고 이번 기회에 삼성서울병원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임상 경험을 쌓고 싶다고 생각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Q: 인턴십과 실습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인턴십 학생으로 선발되었을 때 학교를 대표해서 간다는 생각에 실습 때와는 또 다른 큰 부담을 안고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인턴십 첫 날 병원 투어를 하고 다른 학교 인턴십 학생들과 교류하면서 부담감을 덜게 되어 한층 가벼워진 마음으로 인턴십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프리셉터 선생님과도 더욱 가깝게 지내게 되어 입사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 등에 대해 질의응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실습에서는 쉽게 해볼 기회가 없었던 말초정맥주사를 직접 해볼 수 있었으며 상처 관리, 투약과정 등에 대해 심층적인 강의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삼성서울병원의 인사관리체계와 복리후생에 관한 수업이었는데 실습 중에는 질문하기 어려웠던 주제였기 때문에 더욱 더 집중하여 강의에 참여했던 기억이 남습니다.

### Q: 인턴십을 통해 얻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A: 저의 경우 이번 인턴십을 통해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내에서만 생활할 때는 모두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환경 속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많이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인턴십을 통해 타 학교 학생들과 대화를 나눠보니 절대 나 자신만 불안을 느끼는 것이 아니며, 열등감을 전혀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평소 자존감이 낮은 편인데, 이번 인턴십을 통해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 Q: 후배들에게 인턴십을 추천하는 한 마디를 해주세요.

A: 인턴십을 지원하기 전 저와 같이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인턴십을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저는 인턴십을 수료할 수 있었고 여러분도 누구든지 인턴십을 통해 저처럼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담감에 상응하는 만큼 값진 결과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성적에 대한 걱정은 잠시 내려 두시고 평소 관심을 가졌던 병원의 인턴십 공고가 난다면 반드시 지원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 올해도 치열한 경쟁률, 2017학년도 수시 면접고사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2017학년도 대학입시 수시 면접고사가 10월 20일부터 10월 22일까지 3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번 수시 면접고사에는 약 900여 명의 수험생들이 지원하여 대전과 충남 권 내 타 대학 간호학과와 비교해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지원자들은 면접 후 Sol-hospital의 OR(operating room, 수술실), ICU(intensive care unit, 중환자실), PICU(pediatric intensive care unit, 소아 중환자실)을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17학번으로 입학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드러내 보였다. 그 어느 때보다 쟁쟁한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학생들 인 만큼 앞으로 우송 간호를 빛낼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

◆ 우주희 기자 / 사진제공 : 윤성화



## 배방고등학교 대학 전공체험 프로그램



2016년 10월 11일 우송대학교 간호학과에서 배방고등학교 학생 38명을 대상으로 대학 전공체험 프로그램이 열렸다. 학생들은 간호학과 소개를 시작으로 기본간호학 강의 청강, 모의병원 Sol-Hospital 투어, Vital Sign 실습 등을 체험하고 입학과 학교생활에 관련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프로그램이 마무리되었다. 배방고등학교 학생들은 프로그램에 대해 간호학과를 미리 체험해 볼 수 있어 진로선택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으며, 우송대학교 간호학과와 최신식 실습실 Sol-Hospital과 전문적인 강의에 꼭 참여하고 싶다는 소감을 밝혔다.

◆ 이유나 기자 / 사진제공 : 고남의

##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정시모집현황

2017년 1월 4일 우송대학교 정시지원이 마감되었다. 간호학과는 문.이과 교차지원을 받았으며 19명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총 152명의 학생들이 지원해 작년 대비 1.51 상승한 8: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교수진의 탄탄한 노하우, 간호의 세계화를 바라보는 차별화된 커리큘럼, 그리고 재학생들의 열정과 끈기가 일궈낸 높은 취업률이 올해 정시 지원율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 진윤정 기자



## 전체 학년 미팅(Sol-Fun) 새로운 학기의 시작을 알리는 우송대학교 간호학과의 전체 모임!

2016년 9월 7일, 도서관 대강당에서 전체 학년 미팅인 Sol-Fun이 진행되었다. 이 미팅에는 교수진들과 전체 학년의 학생들이 모두 참여하였다. 진행을 맡은 학회장과 부학회장은 한국어와 영어를 사용하여 미팅을 순조롭게 이끌어 나갔다. 이번 미팅은 새로운 학과장님 소개와 새로 오신 교수님 소개, 학생회 소개, 재학생 활동 보고, 기숙사 규칙, 그리고 VS소개 등이 진행되었다. 새로운 학기의 시작과 함께 진행된 이번 미팅을 통해 교수진들과 학생들은 새로운 마음으로 2학기를 시작할 수 있었다.

◆ 윤성화 기자



## 우송대학교 축제 '응답하라 1995'



2016년 10월 6일과 7일, 이틀에 걸쳐서 우송대학교 축제가 개최되었다. 잦은 비와 거센 바람에도 학생들의 축제에 대한 부분 기대감만큼은 꺾을 수 없었다. 학생들은 오전부터 분주히 축제 부스를 준비하였고 그 중에서 간호학과는 콩가루나 각종 매콤한 소스를 입힌 가래떡 꼬치를 팔았다. 하지만 작년과는 다른 특별한 차이를 두기 위해서 매운 꼬치를 제한된 시간 안에 먹으면 떡꼬치 하나를 더 주는 독특한 이벤트를 준비하였다. 많은 학생들이 이벤트에 성공을 하였고 간호학과 김지영 학생은 "우승해서 받은 이 자그마한 떡꼬치 하나로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소중한 추억을 남기게 되었던 뜻 깊은 순간이었다."라고 전하였다. 이 외에도 향초 만들기, 나만의 디퓨저 만들기, 다양한 버스킹 공연, 복고 패션쇼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들이 학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또한 저녁에는 서캠퍼스 운동장 특설무대에서 대학교 축제의 꽃인 특별공연이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10월 7일 저녁에는 가을밤 하늘을 발갛게 불태울 화려한 불꽃축제로 축제를 마무리 지었다.

다."라고 전하였다. 이 외에도 향초 만들기, 나만의 디퓨저 만들기, 다양한 버스킹 공연, 복고 패션쇼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들이 학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또한 저녁에는 서캠퍼스 운동장 특설무대에서 대학교 축제의 꽃인 특별공연이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10월 7일 저녁에는 가을밤 하늘을 발갛게 불태울 화려한 불꽃축제로 축제를 마무리 지었다.

◆ 이호은 기자 / 사진제공 : 고남의

## 배우고 즐기는 Learning conce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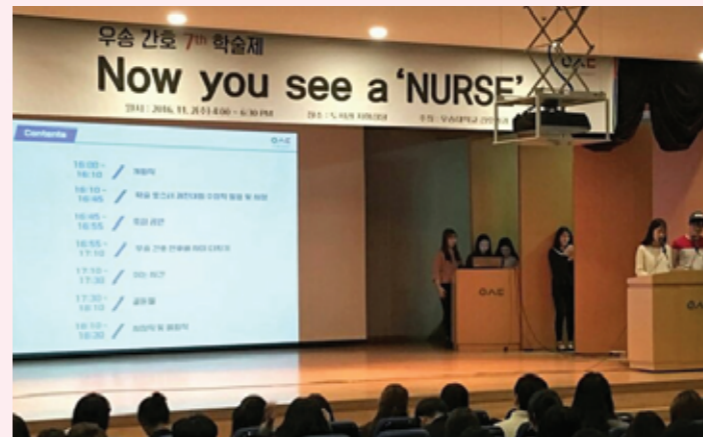
11월 29일 간호학과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한 learning concert가 열렸다. 위 경진대회는 보건복지대학 주관아래 학년별로 나뉘어져 각 학년의 수준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마련되었다. 1학년은 근육주사 실기대회로, 처음 통증사정부터 마지막 폐기물 정리까지 정확한 투약을 위한 약물계산과 전체적인 간호과정이 면밀하고 세세하게 평가되었다. 2학년은 해부생리학 발표경진대회로, 총 14개의 팀들이 각기 다른 신체기관을 맡아 판넬과 소책자 등을 만들어 보건의료과학관 2층에 전시한 뒤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였다. 3학년은 외국인환자간호서비스 스토리보드 경진대회로 6개의 취업동아리 팀들이 외국인환자를 대하는 적절한 상황 설정을 하고 그 상황에 맞는 스토리보드를 독창적이고 구체적으로 준비하였다. 4학년은 "법을 알고 간호를 알면 천하를 얻는다."를 모토로 한 보건의료관계법규 퀴즈대회가 열렸다. 위 대회는

'kahoot' 앱을 활용하여 이루어졌는데 앱의 특성상 문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풀어내야 하므로 학생들로 하여금 고도의 집중력과 긴장감을 이끌어냈다. 2학년 경진대회를 지도해주신 Emile M.Lopez 교수는 "Congratulations to the Department of Nursing for sharing this academic activity as one of the best practices indeed"라며 소감을 전하였다.

◆ 진윤정 기자 / 사진제공 : 고남의



##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학술제 'Now You See A Nurse'



2016년 11월 2일, 도서관 대강당에서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의 학술제가 열렸다. 본 학술제는 학과의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학구열을 높이며, 동기와 선후배간 학업에 대한 교류를 위해 마련되었다. 프로그램은 학과장님의 인사말씀을 시작으로 학술포스터 경진대회를 가지고 학생들의 축하공연, 1학년 학생들이 제작한 UCC시청, 골든벨 그리고 시상식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 눈여겨볼 만한 프로그램은 '골든벨'로 학술국 부원들이 직접 제작한 문제를 조별로 푸는 형식이다. 각 조에는 모든 학년이 골고루 배치되어 있어 정답을 풀 때 함께 답을 논의하며 모르는 것을 채워 넣

아는 것은 서로 공유하며 교류할 수 있도록 구성 되었다. 이번 학술제를 통해 학생들은 학과 공부가 힘들지만 학술제를 통해 자신의 학업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학업에 대한 동기가 강해지는 경험을 했다고 답했다.

◆ 윤성화 기자 / 사진제공 : 김익현

## Global Harmony



2016년 12월 21일 우송타워 6층에서 간호학과 1학년 학생들이 한 학기동안 준비한 합창무대가 진행되었다. 1학년 전체 학생들이 참여한 'Nella Fantasia'로 무대의 막을 열었고 MachoKing, Muze, Nurse Spirit, Fifteen 등 8개의 팀들이 준비한 이색적인 공연들이 뒤를 이었다. 공연의 중간 순서로는 교수들이 준비한 즐거운 캐롤로 특별무대가 꾸며져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껏 달구었다. 2학년 학생들은 관중으로 초청되어 후배들의 노래를 경청하고 함께 따라 부르는 등 호응해주었고 무대의 끝엔 힘차고 아낌없는 박수로 무대를 내려오는 후배들을 격려해주었다. 1학년 김가영 학생은 "글로벌 하모니 수업을 통해 친구들과 즐거운 추억을 쌓을 뿐 아니라 선배들과 교수님들께 멋진 무대를 선사하게 되어 기쁘고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연말이 될 것 같다."며 소감을 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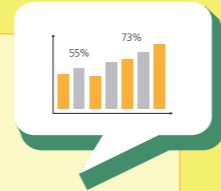
◆ 진윤정 기자 / 사진제공 : 이윤진

## 미래로 통하는 빛 통계청을 방문하다!



2016년 9월 21일, 대전 서구 정부대전청사 통계청에서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계청 견학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통계의 중요성에 대해 학생들의 이해와 관심을 유도하고 통계의 적극적인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서이다. 통계청 전시관의 도입의 장, 통계 알림의 장, 통계청 홍보의 장, 통계 체험의 장 등으로 구성된 참여공간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이 이루어졌다. 전시관 체험을 끝으로, 통계의 역사, 역할 및 활용에 대한 특강이 진행되었다. 정규남 통계청 차장은 "나이팅게일이 수 많은 부상자의 사망률을 줄일 수 있었던 혁신적인 방법이 통계를 사용했던 것이었듯이 간호학과 학생들도 효율적으로 통계를 사용하여 간호사의 전문성과 의료의 질을 높이기 바란다."고 전하였다.

◆ 이호은 기자 / 사진제공 : 고남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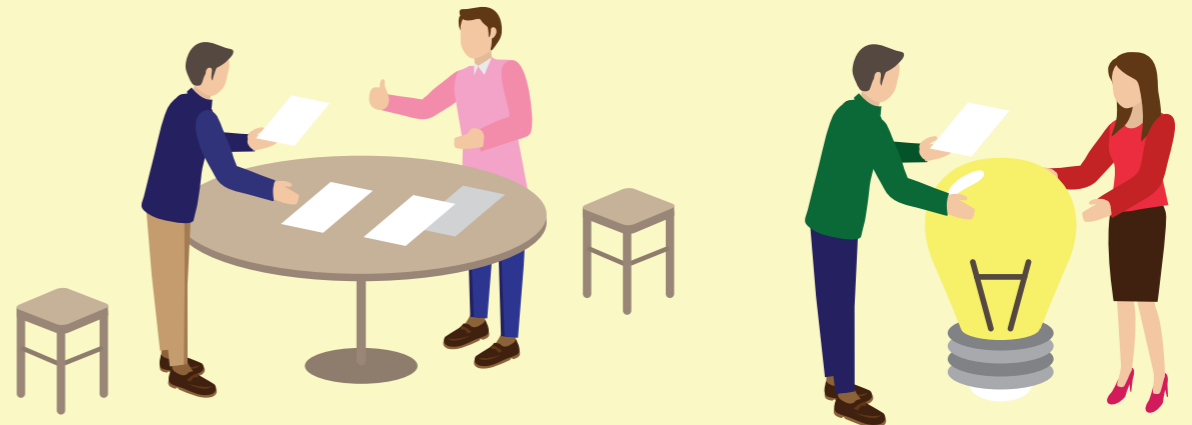


## 버디버디 경진대회



2016년 12월 21일, 우송타워 6층에서 버디버디 경진대회가 개최되었다. '버디버디'란 1학년 학생들의 학교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취지로 운영되고 있으며 2학년 선배가 멘토가 되어 1학년과 함께 다양한 활동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이다. 총 10팀 중에서 3팀이 대회에 출전하였으며, 'A플러스'팀의 김현주 학생, '삼국지'팀의 김윤정 학생, '미소지기'팀의 박주보 학생이 지난 2학기동안 활동한 내용을 발표하였다. 원활한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버디버디 취지에 맞게 함께 식사를 하며 학교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학습역량 향상을 목표로 한 전공 및 외국어 스터디 모임을 자발적으로 진행하기도 하였다. 'A플러스' 팀의 멘토 김현주, 이수연, 노희주 학생은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튜터링 프로그램'에 지원하여 전공관련 시험대비 문제를 출제하여 함께 풀거나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각자 질문과 토의를 통해 이야기를 나누고 효율적인 학습방법을 논의하는 등의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였다. 대회에서 활동우수상을 수여받은 멘토 김현주 학생은 "퀴즈와 중간고사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선후배간에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좋은 기회였다."며 소감을 전하였다.

◆ 이호은 기자 / 사진제공 : 김의현





## 우송대학교 김성경 이사장 간호학과 방문



2016년 11월 30일 오후 보건의료과학관 101호에서 겨울학기 임상실습을 준비하는 3학년 학생들과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4학년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우송대학교 김성경 이사장의 방문이 있었다. 김성경 이사장은 2009년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설립 당시를 회상하며 “학생들과 교수진의 극진한 노력이 있었기에 무궁한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송대학교의 대표 학과로 남아주길 바란다.”라고 말하며 우송대학교 간호학과에 대한 애정과 기대를 표현하였다. 학생들에 대한 감사함의 표시로 특별히 준비한 간식을 전달하며 학생들을 격려하였다.

◆ 차윤주 기자 / 사진제공: 고남의



## 국가고시를 한 달 앞두고

2016년 12월 16일과 1월 9일에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 시간이 마련되었다. 간호사 국가고시가 한 달여 남은 시점에서 우송대학교 간호학과는 여러 학교에서 강사를 초청하여 기본간호학, 간호관리학, 여성간호학 등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과목 위주로 특별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었다. 기본간호학, 간호관리학, 여성간호학은 각각 우석대학교 장수정 교수, 송곡대학교김인경교수, 우송정보대학 송지아 교수에 의해 진행되었다. 교수들은 간호사 국가고시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을 요약하여 강의를 진행하였으며 이날 특강을 들은 4학년 학생들은 “특히 어려운 과목의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 우주희 / 차윤주 기자

## 제 5회 우송간호 학위수여식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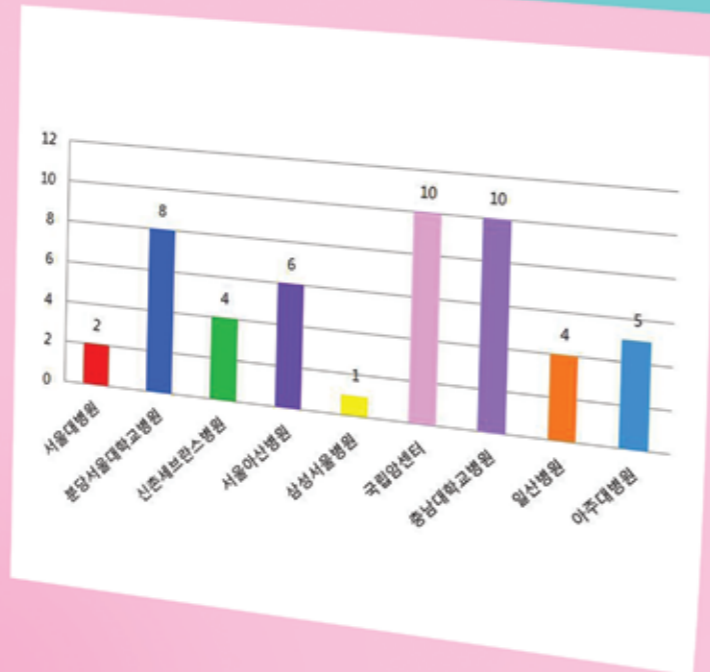
2017년 2월 17일 우송대학교 도서관 대강당에서 5기 간호학과 학생들의 학위수여식이 개최되었다. 위 행사엔 졸업생들이 더 이상 학생 신분이 아닌 사회인으로서 내딛을 첫발을 응원하기 위해 교수, 재학생 그리고 학부모 등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자리했다. 강창희 학과장은 “5기 학생들의 졸업과 100% 병원 취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씨와 의료인으로써의 사명감을 갖고 한국을 넘어 세계로 간호의 뜻을 널리 전파하는 멋진 우송간호 졸업생이 되길 응원하겠습니다.”며 격려했다.

◆진윤정 기자 / 사진 출처 : 과사



## 2017년 2월 졸업예정자 채용 현황

2017년 졸업예정자인 우송대학교 4학년 학생 81명 전원 모두 병원에 채용되었다. 서울대학교병원 2명, 분당서울대학교병원 8명, 신촌세브란스병원 4명, 서울아산병원 6명, 삼성서울병원 1명, 국립암센터 10명, 충남대학교병원 10명,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 4명, 아주대학교병원 5명, 단국대학교병원 1명, 한양대학교병원 1명, 강북삼성병원 1명 등으로 주요 대학병원에 높은 취업률을 달성하였다.



Global  
Nursing Leaders!

## 제 57회 간호사 국가고시

5년 연속  
100% 합격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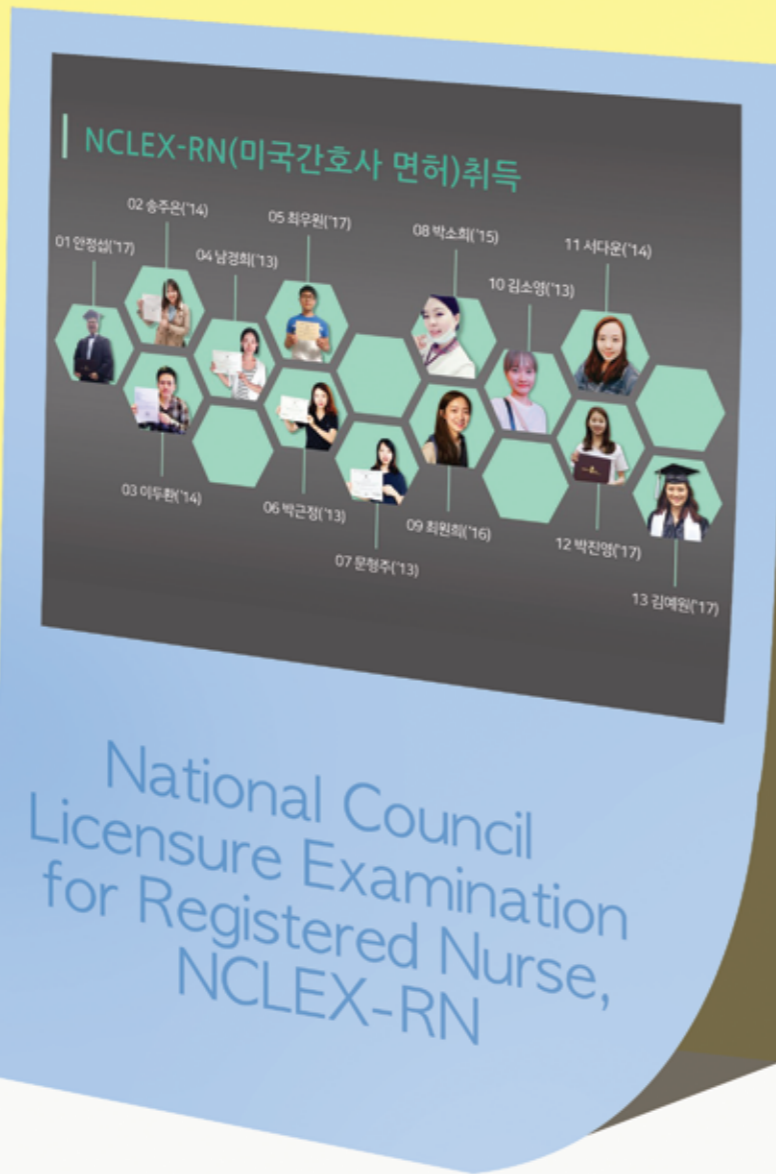
2017년 1월 20일 제 57회 간호사 국가고시가 실시되었다.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제 5회 졸업 예정자 81명이 응시하였으며, 81명 전원 100%의 합격을 기록하였다. 이로써 우송대학교 간호학과는 학과 개설 이후 5년 연속 국가고시 100% 합격을 기록하였다. 올해 간호사 국가고시는 총 2만 200명이 응시하여 작년 역대 최대 응시인원이었던 18,666명의 기록을 갱신하였다. 국가고시를 본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4학년 학생은 “매우 긴장하여 전날 밤 잠을 많이 못 잤습니다. 가장 크게 느낀 점은 국가고시는 절대 쉬운 시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열심히 공부하였기 때문에 합격률이 높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후배 여러분들도 힘 내시길 바랍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 김유빈 기자

◆ 김유빈 기자 / 자료출처 :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사이트

## 미국 간호사의 첫 단계 '미국간호사 면허 취득'(NCLEX-RN)

미국간호사면허(National Council Licensure Examination for Registered Nurse, NCLEX-RN)를 취득한 졸업생 수가 증가하고 있다. 2016년 12월에 4기 최원희 동문이, 2017년 3월에는 박진영, 김예원 동문이 시험에 합격하면서 2017년 4월 현재 총 13명의 졸업생이 면허증 취득에 성공하였다. 미국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한 간호사는 미국의 공식 간호사가 되기 위한 자격을 부여를 받을 수 있으며 면허증은 미국의 모든 주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므로 시험에 합격해야 간호사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 이호은 기자 / 사진출처 :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홈페이지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5기 졸업생 김예원, 박진영 동문은 우송 간호에서 각각 12번째, 13 번째로 2017년 3월에 미국 간호사 면허(National Council Licensure Examination for Registered Nurse-Registered Nurse, NCLEX-RN)를 취득하였다. 두 학생은 Fairmont State University(FSU)에서 '2+2' 복수 학위제도를 통해 총 2개의 간호학 학위를 취득한 학생들로서는 안정섭, 최우원 졸업생 다음으로 FSU를 졸업하였다. 김예원 학생의 미국 간호사 면허를 취득까지의 과정과 후배들에게 전해줄 조언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인터뷰를 마련하였다.

**Q. 졸업하신지 얼마 안된 기간에 이렇게나 빠른 시일 내에 미국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시다니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간단한 소감 한 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A. 저는 2016년 5월에 FSU를 졸업하고 작년 6월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 병원 취업전선에 합류하여 12월 말에 NCLEX-RN을 신청하고, 1월에 국가고시를 보고 3월에 뉴욕 주 미국 간호사 시험을 보았습니다. 한국 국가고시를 치고 3월 초에 NCLEX-RN 시험이 잡혀 있어 시간이 매우 촉박하였으나 한국 간호사 국가고시 준비하면서 간호학 개념을 한번 훑어보았으며 NCLEX 시험은 문제풀이 위주로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한국, 미국 두 간호사 면허를 딴 지금 마음이 매우 후련합니다.

**Q. 합격한 학생으로서 면허증을 취득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FSU 대학교에서 간호학 공부를 한 후 면허증을 취득하는 데 수월함을 느끼셨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A. 네, FSU에서의 간호학 공부가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FSU에서 봤던 시험 방식이 대체로 NCLEX-RN 형식의 문제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본 개념을 묻기 보다는 그 개념을 바탕으로 실제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간호수행을 정하여 상황에 적용하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들에 많이 익숙하였기에 단기간에 시험을 준비할 수 있었어요. 미국에서 최소한 2년 동안 학교를 다니고 졸업하여 학위를 취득한다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첫째, 미국 간호사 면허를 빠른 시일 안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간호학과를 졸업하게 되면, 국가고시를 통과하고 한국 간호사 면허증이 나온 다음 NCLEX-RN 시험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 과정이 한국 간호사 면허증을 받은 이후 뉴욕 주를 기준으로 최소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FSU를 다니면 미국 대학교에서 졸업하기 전에 최대 1년 반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요. 둘째, 미국에서 스스로가 일하고 싶은 주(州)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니면서 캠퍼스 내에서 일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주민등록증과 같은 Social Security Number (SSN)을 받게 되는데, 이 SSN으로 자기가 원하는 주의 간호사회에 NCLEX-RN 시험을 신청하여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진출 시 영어성적 면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막상 미국에 가기 전 준비해야 할 과정에서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조건 중 하나가 영어점수입니다. IELTS 스피킹 7.0, Overall 점수 6.5 이상, 혹은 토플IBT 스피킹 26점 이상 Total 24점을 받아야 하는데, 미국에서 학위가 있으면 이 영어 점수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병원 실습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저의 소견으로는 사실상 이 3가지가 가장 현실적인 FSU의 가장 좋은 혜택이라고 봅니다.

**Q. 미국간호사 면허증 취득은 본인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미국으로 진출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A. 미국 간호사 면허 취득은 정말 저에게 의미가 있는 결실이죠. 하지만 미국간호사가 되어 A4용지 한 장 받는 것 자체가 저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나 이제 간호사 생활의 첫 발돋움 하는 단계를 밟는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간호사다운 간호사가 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Q. 마지막으로 NCLEX-RN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을 Fairmont 재학생들을 포함해서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재학생 후배들에게 전해줄 충고 혹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A. 제가 대학생할 동안 느낀 점이 있다면, 미국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할 의향이 있다면 일단 도전정신을 갖고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무모한 꿈이라도 크게 가지면 그 부서진 조각도 크다고 하잖아요. 그런 무모함이 여러분 인생을 전혀 다른 길로 바꿔 놓을 수 있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변화할 겁니다. 여러분이 시도를 하지 않으면 모르는 일이니까요. 아무튼 손 꼽아기 다리지 않아도 국가고시 보는 날은 오고, NCLEX-RN 보는 날도 올 겁니다. 오늘 아니면 평생 안 올지도 모르는 여러분 안의 열정과 꿈을 꾸준히 따라가셨음 좋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항상 응원할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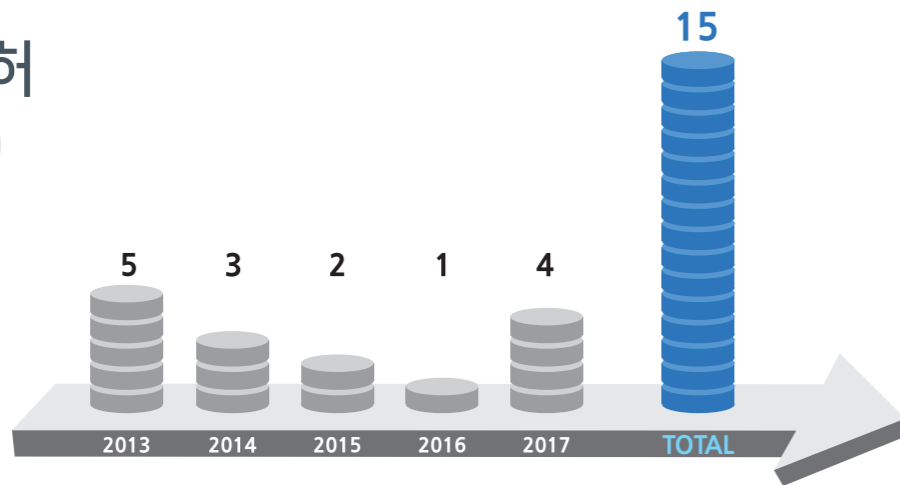
◆ 이호은 기자 / 사진제공 : 김예원

# 우송간호 1회~5회 총 309명 졸업생 취업 현황



<b>47명</b> 서울대학교병원	<b>24명</b> 국립암센터	<b>23명</b>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b>22명</b> 서울아산병원
<b>22명</b> 충남대학교병원	<b>18명</b> 세브란스병원	<b>17명</b> 차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	<b>13명</b> 고려대학교병원

## 미국간호사 면허 (NCLEX-RN)



## 임원진 인사



안녕하세요, 간호학과 신문 동아리 솔타임즈의 임원진입니다. 1학년 때 이 동아리에 처음 들어와서 일하기 시작한 것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높은 학년이 되어 임원진을 맡고 잡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부원 선발을 위해 신입생들과 면접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본 동아리에서 편찬하는 잡지가 고등학생들의 대학 입시를 위한 자료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솔타임즈 동아리가 단순히 학과를 홍보한다는 단일한 목적에서가 아닌 장차 미래의 우송대학교 신입생이 될 독자들을 대상으로 간호학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릴 수 있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임원진뿐만 아니라 동아리 부원들과 더불어 앞으로 학과의 다양한 콘텐츠를 소재로 이 잡지를 읽게 될 독자들에게 더욱 더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서 후일에 다시 빛도 록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회장 <b>김유빈</b>	부회장·사진부장 <b>고남의</b>	기사부장 <b>이호은</b>	편집부장 <b>최은비</b>
------------------	------------------------	--------------------	--------------------



제 12호 2017년 1학기



THE WOOSONG UNIVERSITY  
NURSING SCIENCE  
DEPARTMENT PRESS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 171(자양동) 우송대학교 서캠퍼스 보건의료과학관 3층  
042-630-9290 <http://nursing.wsu.ac.kr>